

柳希春이 版刻을 主導한 書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Books Engraved under the Auspices of *Yu Heui-Chun*

裴賢淑(Hyon-Suk Pae)*

〈目次〉

緒言

1. 攷事撮要 冊版目錄과 眉巖日記
2. 朝鮮朝 地方 版刻의 冊板 管理
3. 眉巖이 版刻을 主導한 書籍의 冊板

1) 外祖父 崔溥 關聯書籍

2) 兒童教育用 書籍

結言

초 록

본고는 조선조 중기의 관료이며 학자인 眉巖 柳希春의 일기를 통해 당시 서적 간행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眉巖 柳希春은 만년에 관직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남겼으니 이 『眉巖日記』에 일상의 일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적, 가정사까지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 일기를 통해 미암의 서적과 관련된 여러 일 가운데 미암이 주도적으로 간행하려고 노력한 서적을 밝혔다. 아울러 당시에 편성된 책판목록에 수록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였다.

미암이 개인적으로 간행하고자 한 서적은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조부 금남 최부의 문집인 『錦南集』과 중국기행문인 『漂海錄』이다. 다른 하나는 아동용 도서로 문해용의 『新增類合』과 도덕교육용의 『續蒙求』이다. 이들 서적을 인출하기 위해 판각한 당시의 책판은 당대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眉巖日記』를 통해 책판목록에 누락된 서적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眉巖日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主題語: 柳希春, 眉巖日記, 錦南集, 漂海錄, 續蒙求, 新增類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woodblocks which were engraved in the providences in the mid Chosun dynasty, especially ones engraved under the auspices of Yu Heui-chun(柳希春), but not listed in 『Kosachwalyo 攷事撮要』. This could be done by the analyzing 『The Diary of Miam 眉巖日記』 written by Yu Heui-chun. It is a book which recorded daily life of eminent scholar and official covering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books and family matters.

There were two categories of books pu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Yu Heui-chun. One is the books written by his grandfather in law, Choi Bu(崔溥), which were 『Keumnamjip 錦南集』, collective works of Choi Bu, and 『Pyohaerog 漂海錄』, essays on travelling across China. The other is the books for children, 『Sinjeung Yuhap 新增類合』 for teaching characters and 『Sog Mong-gu 續蒙求』 for moral education. These woodblocks have to enlisted in the woodblock catalogs. The analysis shows that most of these woodblocks by Yu Heui-chun were not recorded in either of two 『Kosachwalyo 攷事撮要』 editions published in 1575 and 1585. In this respect, 『The Diary of Miam』 proved itself to be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bibliography studies.

Key Words: *Yu Heui-Chun, The Diary of Miam, Keumnamjip, Sog-monggu, Sinjeung Yuhap.*

* 啓明文化大學 文獻情報科 教授(hspae@km-c.ac.kr)

• 접수일 : 2003. 8. 25 • 최초심사일 : 2003. 9. 2 • 최종심사일 : 2003. 9. 9

緒言

임진왜란 이전의 책판에 관한 연구의 중요자료는 『攷事撮要』이다. 이와 병행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眉巖日記』이다. 『眉巖日記』에는 미암 유희춘이 일상의 일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여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풍속, 문화, 서적 등 여러 방면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된다. 필자는 이미 『眉巖日記』를 분석하여 선조초 교서관의 활동과 서적의 유통과 지방의 책판에 관해 분석한 바 있다.¹⁾

『攷事撮要』 책판목록에는 조선전기의 많은 책판이 판목의 수장처별로 수록되어 있어서 산일된 책판을 확인하거나 현존 고서의 간행지와 간행년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 책판목록에는 開版된 상당수의 책판이 누락되어 있다. 주된 이유는 『攷事撮要』가 官撰書이므로 국시인 승유정책에 입각하여 편찬되어서 불교서적과 사찰판이나 국시와 관련없는 저술들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林川 寶光寺(2종)와 瑞興 歸眞寺(3종) 각판의 책판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찰의 간본은 불교서적이 아니고 유학관계 서적이므로 제외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서적 간행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校書館의 책판도 다 수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和賣를 하는 서적만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책판이 있어도 사정에 따라 화매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판이라도 여기에 수록된 것 이외에도 상당수의 책판이 빠졌을 것이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빠진 책판에 대해 그 규모나 서명에 대한 연구는 金致雨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누락된 전존본으로 확인된 것은 250여종이다.²⁾

이 250여종의 책판이 모두 『攷事撮要』 편찬 당시에 전래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선초부터 판각된 책판이 모두 선조년간까지 전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누락된 책판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완벽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실제 임진왜란 전까지 전승되었으나 누락된 책판의 片鱗을 알고자 함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眉巖日記』를 분석하여 선조초 미암이 직접적으로 간행을 주도한 서적의 책판에 관해서만 국한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裴賢淑, “宣祖初 校書館活動과 書籍流通考,” 書誌學研究, 제18집(1999. 12), pp.221-251.

裴賢淑, “宣祖初 地方 冊板考,”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pp.299-340.

2) 金致雨, 攷事撮要의 書誌的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72), p.28.

金致雨, “壬亂以前 地方刊本の 開版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6집(1998. 12), pp.37-61.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p.40.

1. 攷事撮要 冊版目錄과 眉巖日記

현재 임진왜란 이전의 책판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긴요한 서적은 『攷事撮要』이다. 또한 『攷事撮要』는 조선조 관리나 선비에게 긴요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명종 9(1554)년 魚叔權이 편찬한 이후 영조 7(1771)년 徐命膺이 대폭 개정증보하기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쳐 속찬되고 개수되어 간행되었다. 그 중 책판목록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4종의 『攷事撮要』에 모두 수록되어 있고 내용이나 체제에 큰 차이가 없다.

개정될 때마다 약간의 내용상 증감이 있는데, 선조 1(1568)년 乙亥字本 『攷事撮要』 가운데 증보된 것으로 확실한 것은 명종 21(1566)년 中和 淸涼書院 간행의 『近思錄』과 동년 順天府 간행의 『三韓詩龜鑑』이다. 선조 9(1576)년 을해자본 『攷事撮要』는 선조 1(1568)년 본과 대동소이한데 平壤의 『十九史略』만 증가되어 있다. 선조 9(1576)년 번각본 『攷事撮要』에는 晝冊市准에 3종 추가되고 책판목록에는 평양의 『十九史略』은 수록되지 않은 반면, 密陽의 『唐鑑』과 海州의 『詩大文』이 추가되었다. 선조 18(1585)년 목판본 『攷事撮要』는 許筭이 속찬한 것인데 책판목록에도 430종의 증보가 있다.

魚叔權 편찬의 명종 9(1554)년본 『攷事撮要』는 멸실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는 전래본 『攷事撮要』의 서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책판목록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고 八道程途에 부기되어 있다. 도별로 경중에서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지방별로 거리와 별호를 수록하고 말미에 책판을 부기하였다.

金致雨는 선조 1(1568)년 간본은 원찬자 魚叔權이 생존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보찬은 필시 그(魚叔權)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³⁾ 이는 『眉巖日記』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선조 1(1568)년 2월 미암은 교서관 唱準 楊建에게 『攷事撮要』 인출용의 책지 100장을 주고 또 장지 2권10장을 부치고, 海衣 2권을 주었다고 기록함⁴⁾을 보아 이때 『攷事撮要』를 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8월에는 郭大方이 『攷事撮要』를 裝潢해서 가지고 오니 魚와 米로 그 수고를 치하하였다.⁵⁾ 9월의 기록에 楊建이 와서 『攷事撮要』를 받고 改補해서 갔다⁶⁾고 기록하고 있다. 이 9월의 기록에서 『攷事撮要』의 개정에는 魚叔權 단독이 아닌 미암도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미암은 교정쇄를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이때 미암이 개보한 것은 책판목록 부분만이 아니라 『攷事撮要』 전체를 개보한 것이다.

3) 金致雨, 攷事撮要의 冊版目錄 研究(釜山: 民族文化, 1983), p.13.

4)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2월 15일. 책1. p.127.

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8월 22일. 책1. p.327.

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9월 8일. 책1. p.343.

楊建來受攷事撮要 當改補而去.

魚叔權은 좌의정 魚世謙의 庶孫인 까닭에 관직에는 나아갈 수 없는 신분이었으므로 승문원에서 吏文學官을 지낸 문사였다. 魚叔權이 처음 『攷事撮要』를 편찬할 때 미암은 鍾城의 유배지에 있었다. 복관된 후에 도서관에 있었으므로 서적의 편찬과 간행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선조 5(1572)년 1월 미암은 魚叔權의 『稗官雜記』의 저술을 장려하여 지필묵을 주기도 하였다.⁷⁾ 선조 6(1573)년 7월에는 魚叔權이 『稗官雜記續集』 2권을 완성하여 보내니 고쳐주고 世教에 보탬이 됨을 가상히 여겨 漆扇을 보내주었다.⁸⁾ 이와 같은 교류를 한 사이이므로 『攷事撮要』 속찬에 조언이나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

선조 18(1585)년 『攷事撮要』는 許箴이 속찬하였다. 許箴은 同知中樞府事 許擘의 아들로 선조 5(1572)년 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16(1583)년에는 典翰이 되었다. 급제하기 전부터 미암과는 교류가 있어 서로 서책을 주고 받기도 하고,⁹⁾ 許箴이 미암의 책을 필사하기도 하였다.¹⁰⁾ 許箴은 한림으로 도서관에도 봉직했으므로 평양에서 『致堂管見』을 간행하는데 관여하기도 하고¹¹⁾ 사관의 천거를 의논하기도 하고,¹²⁾ 『退溪文集』의 각판을 의논하기도 하고,¹³⁾ 『性理大全』의 和賣의 行下를 청하고¹⁴⁾ 『續蒙求』의 개정¹⁵⁾과 『儒先錄』에 晦齋 李彥迪의 進修八戒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¹⁶⁾도 하였다. 그러나 魚叔權이나 미암은 許箴의 『攷事撮要』 속찬시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조언을 할 수 없었지만 영향은 미쳤다고 볼 수 있다.

『攷事撮要』 책판목록에는 많은 책판이 판목의 수장처별로 수록되어 있어서 조선 전기 간본으로 산일된 서적을 확인하거나 현전하는 고서의 간행지와 간행년도 추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산실된 책판이 많아서인지 광해군 4(1612)년 훈련도감자본 朴希賢 개수본부터는 책판목록은 전부 삭제되어 土産으로 대치되어 있다.

이 『攷事撮要』의 여러 판본의 책판목록에도 누락된 책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는 『眉巖日記』일 것이다. 眉巖은 평생 일기를 썼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만년의 일부만 전래되고 있다. 전래되고 있는 일기의 시작은 선조 즉위(1567)년 10월이고, 사망하기 이틀 전인 선조 10(1576)년 5월까지 기록되고 있다. 이 기간은 미암이 유배에서 풀려나 관직생활을 하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서 선조 2(1568)년 11.

7)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정월 5일. 책3. p.346.
 8)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7월 24일. 책4. p.455.
 9)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9월 12일. 책1. p.346.
 庚午 8월 17일. 책2. p.93.
 10)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庚午 8월 17일. 책2. p.368.
 庚午 9월 4일. 책2. p.378.
 11)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庚午 9월 4일. 책2. p.378.
 12)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壬申 5월 3일. 책3. p.479.
 13)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壬申 11월 19일. 책4. p.173.
 14)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壬申 정월 11일. 책3. p.351.
 1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己巳閏6월 25일. 책2. p.57.
 1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庚午 9월 7-8일. 책2. p.381-2.

6.~선조 3(1569)년 5. 21, 선조 4(1570)년 1.1.~4. 23, 선조 5(1571)년 12. 4.~선조 6(1572)년 8. 30, 선조 9(1575)년 3. 22.~10. 26까지는 완전히 누락되었다.

柳希春은 명종이 즉위(1545)하고 文定王后가 수렴청정하면서 내린 밀지의 부당함을 논박하였으므로 파직되고 급기야 명종 3(1548)년 2월 함경도 鍾城으로 귀양가게 되었다.¹⁷⁾ 미암은 10여년간 鍾城의 유배지에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후진양성과 저술에 힘썼다. 명종 20(1565)년 文定王后가 죽고 이어 尹元衡이 축출되자 선조 즉위(1567)년 10월에 21년간의 유배생활이 해제되고 이어 經筵官 겸 成均館 直講으로 재출사하게 된다.¹⁸⁾ 그가 복관되어 별세하기까지 11년 동안 大司成, 大司諫, 大司憲, 副提學, 禮曹參判, 吏曹參判 등을 역임했고, 외직은 全羅監司를 지냈다. 그 중에서도 弘文館의 副提學을 가장 오래 역임하면서 經筵官으로 활동했고, 校書館의 提調도 역임한 바 이때 수많은 서적을 인행했다.

『眉巖日記』에는 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관인으로서 수행한 업무내용도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다. 문제는 오늘날 그 내용이 공적인 업무를 기록한 것인지 사적인 활동인지 분간이 쉽지 않은 기사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일기를 써서 후세에 남겼으므로 이 일기를 통해 선조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예속, 어학, 서적출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眉巖日記』를 통해 전래되는 책판을 이용한 인출, 선조초에 책판을 판각한 정확한 시기와 지역, 출판에 관여한 인물 등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眉巖日記』와 『攷事撮要』 이 두 서적에는 분명히 동일한 서적인데도 어떤 것은 정식서명, 또 어떤 것은 간략서명이나 도치서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허다하다. 『眉巖日記』는 개인 일기이므로 경우에 따라 약서명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조사하였다면 여러 서명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 『攷事撮要』에 수록된 책판은 원찬자 또는 속찬자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⁹⁾ 사실 『攷事撮要』에 수록된 책판은 魚叔權이나 許筭이 직접 책판을 보고 작성했다기 보다는 지방수령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기초조사한 지방관리에 따라 다르게 기록했고, 그것을 토대로 전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조선시대 책판관리의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朝鮮朝 地方 版刻의 冊版 管理

서적 간행에 있어 조선조에도 고려시대의 관례를 따라 지방에서 판각한 책판으로 인출

17)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68-69) 이하 동일.

朝鮮王朝實錄. 明宗 2년 9월 丁卯. 권6. 책19. p.530下右.

明宗 2년 9월 壬午. 권6. 책19. p.533下右.

18)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丁卯 10월 14일. 책1. p.15.

19) 金致雨, 攷事撮要의 書誌의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72), p.24.

金致雨, 攷事撮要의 冊版目錄 研究(釜山: 民族文化, 1983), p.48.

해서 상송한 서적도 전국에 배포하였다. 또는 지방에서 판각한 책판을 교서관으로 모아서 인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각자하여 상송한 목활자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태종 3(1403)년에 주자인쇄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활자인쇄는 인출부수의 제한을 받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책은 목판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선초에는 인출 후 책판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판각된 책판은 오래 보존하면서 인출할 수 있으나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판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판의 관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세종 3(1421)년 2월에는 지방관리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아 책판이 산일되므로 판목들을 정리, 수장하여 산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²⁰⁾ 나아가 세종 7(1461)년 9월에는 신구수령의 교대할 때 각 관청에서 수장하고 있는 책판에 대한 傳掌을 분명히 하여 解由를 받고, 파손되거나 유실된 것은 보충하여 傳掌할 것을 명하였다.²¹⁾ 동왕 10(1428)년 정월에는 판목을 보관하기 위해 樓閣을 지어 분류, 장치하여 산일되지 않게 할 것, 欠缺이 생기면 수시로 改刊하고, 수령이 교대할 때 解由를 받도록 하는 冊板藏置의 법을 정하였다.²²⁾

책을 간행하는데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종 14(1432)년 8월에는 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서책은 啓聞 후에 개판하도록 하되 타도와 중복을 피하고 不緊한 서적은 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²³⁾ 이를 위해 교서관에 2품 이상의 문신과 승지 각 한 사람으로 된 제조, 교리 및 參外官 2, 3명의 책판 전담 관원을 두었고, 이들 관원이 교체될 때에는 문건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인계하도록 규정하였다.²⁴⁾

그리고 성종 2(1471)년에도 수령이 용의주도하게 간수하고 수장하지 않아 산실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신구수령이 명확하게 인수하고 인계할 것을 명하였다.²⁵⁾ 이후 이들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졌다. 중종 2(1507)년 奉常寺正 崔連孫이 함양군수로 재직할 때에 유림이 빈번하게 인출하여 번거롭다고 『黃山谷集』의 책판을 소각한 이유로 파직되기도 하였다.²⁶⁾ 이를 보면 철저하게 책판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黃山谷集』은 중종 2년에 소각되었으므로 『攷事撮要』 책판목록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책판관리의 결과가 선조 1(1568)년 간행부터 선조 18(1585)년까지 간행된 『攷事撮要』 八道程途에 수록된 책판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판은 임진왜란

20)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11. 3年 2月 戊戌. 冊 2. p.423中.

21)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29. 7年 9月 丁酉. 冊 2. p.691上左.

22)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39. 10年 正月 己酉. 冊 3. p.112下左.

23)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57. 14年 8月 己丑. 冊 3. p.408下右.

24)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70. 17年 10月 丁巳. 冊 3. p.656下中.

25) 朝鮮王朝實錄. 成宗 卷 9. 2年 正月 丁亥. 冊 8. p.547上右.

26) 朝鮮王朝實錄. 中宗 卷 3. 2年 10月 丁酉. 冊14. p.199上左.

이후에 간행된 『攷事撮要』에는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 직후 책판관리에 대한 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준수되었는가는 미지수이다. 아마도 임진왜란 후 상당기간은 책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책판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시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鏤板考』를 위시한 후기의 책판목록의 전례를 보아 후기에도 책판관리와 보고제도가 실천된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조선말까지 지속되었으니 각 지방의 읍지에 책판을 수록한 것을 보아 더 효과적으로 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3. 眉巖이 版刻을 主導한 書籍의 冊版

『眉巖日記』에 수록된 목판본의 판목은 『攷事撮要』 책판목록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眉巖日記』의 연대가 선조 즉위년 10월부터 선조 10년 5월까지이므로 『攷事撮要』 선조 1년본 늦어도 선조 9년본과 선조 18년본에는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들 서적에 누락된 서적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攷事撮要』에 누락된 책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攷事撮要』에 누락된 책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두 번째로 미암이 판각을 주도한 서적의 책판으로 외조부 崔溥와 관련된 서적과 아동교육용 서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미암 유희춘(1513-1577)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더구나 유배기간에는 더욱 전념하여 학문에 통달하게 되었다. 미암은 선조 6(1573)년 1월초에 교서관 제조에 임명되어 선조 9(1576)년 5월에 체직된다. 이 기간 중에도 대사헌, 첨지중추부사, 부총관, 예조참판, 동지중추부사, 형조참판, 부제학, 이조참판 등의 관직을 겸직하게 되는데, 제조에 재직한 3년 4개월간의 일기에는 교서관에 관해 특히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미암이 이 기간 중 서적간행의 주무부서인 교서관의 수장으로서 교서관의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이다. 선조년간 재사환한 기간에 『獻芹錄』, 『儒先錄』, 『朱子語類』, 『朱子大全』 등의 서적 간행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국가 중앙에서도 활자로 『朱子語類』 등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미암은 외조부와 관계되는 서적과 아동교육용 서적의 간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판각하였다.

1) 外祖父 崔溥 關聯書籍

미암은 외조부 錦南 崔溥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崔溥(1454~1504)의 자는 淵淵, 호는 錦南, 본관은 羅州이며, 거유 金宗直의 문인으로 성종년간 문명을 떨쳤다. 성종 13(1482)년 親試文科에 급제하고 교서관의 저작, 박사, 수찬 등을 지냈으며, 성종 16(1485)년 『東國通鑑』, 성종 17(1486)년 홍문관교리로서 『東國輿地勝覽』 등의 편찬에 참

여하였다.

성종 18(1487)년 제주로 奴婢推刷敬差官으로 파견됐다가 부친상을 당해 급히 고향인 羅州로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에 도착해 목숨을 구했고, 북경을 거쳐 5개월 후 경중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부는 귀국 얼마 뒤 연산군이 임금자리에 올라 학정을 펼치자 이를 비판하는 諫言을 하다가 戊午士禍를 만나 연산군 4(1498)년 함경도 端川으로 귀양갔고, 귀양살이 6년만인 연산군 10(1504)년 甲子士禍를 만나 斬刑을 당하였다.

A. 漂海錄

崔溥가 표류하게 된 계기는 갑작스러운 부친상이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 최부는 임지인 제주도에 있었다. 최부는 성종 18(1487)년 11월 제주로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들이는 推刷敬差官으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당시 도망친 노비들이 가장 많이 숨어사는 곳이 제주도였다. 노비들을 잡아들이던 중 이듬해 1월 부친상을 당하였다. 제주에서 급히 고향인 전남 羅州로 돌아오다가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와 뱃사람 등 일행 42명과 함께 흑산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났다. 오키나와 인근에선 해적떼를 만나 노략질을 당하고 배마저 부서져 속수무책인 가운데 보름을 떠돌다가 중국 浙江省 寧波府 해안에 표착하여 일행과 함께 明나라를 거쳐 6개월 뒤 귀국할 수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부는 筆談을 나누면서 조선 관료로서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당당한 자세를 보였고, 마침내 명나라의 호의로 北京과 遼東 및 義州를 거쳐 5개월 후 6월에 경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간의 경과를 성종에게 보고한 바 왕은 기록하여 바칠 것을 명해 저작된 것이 『漂海錄』이다. 『漂海錄』은 꼼꼼한 일기 형식으로 쓰였다. 이 작품의 내용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면서 배 안에서 미신을 믿는 뱃사람들과 喪主로서 죄인으로 자처한 저자와의 많은 갈등, 왜구를 만난 일, 표류하다가 영과부 바닷가에 도착한 뒤에 왜구로 오인을 받아 붙잡혀 사형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중국 관리를 만나 신분과 표류 원인을 밝힌 뒤 북경으로 옮겨지게 된 일,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북경을 출발하여 요동을 거치며 얻은 견문,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정(里程) 등 보고 듣고 느낀 갖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로, 기후, 산천, 도로, 관부(官府), 고적, 풍속, 민요 등 폭넓은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는데 조선전기 해양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이름은 『錦南漂海錄』이라고도 한다. 『漂海錄』은 9세기 일본 승려 円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 13세기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쓴 『東方見聞錄』과 함께 중국을 들여다본 외국인이 쓴 3대 기행문으로 꼽힌다. 이 책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唐土行程記』,²⁷⁾ 『通俗漂海錄』²⁸⁾ 등으로 번역되어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미암은 이 『漂海錄』의 간행에도 열성을 보였다. 선조 3(1570)년 5월 미암은 定州牧使

27) 崔溥著, 播磨清絢譯. 唐土行程記. 4冊. 木版本. (國立圖書館 檀古朝63-42)

28) 崔溥著, 播磨清絢譯. 通俗漂海錄. 4冊. 木版本. 1795. (國立圖書館 古朝63)

尹大用에게 『漂海錄』 간행용 책지와 목을 보냈고,²⁹⁾ 7월에는 書員 金謹이 관서에서 돌아 오면서 정주에서 인출한 『漂海錄』 3책을 가져왔음을 기록하고 있다.³⁰⁾ 또 선조 4(1571)년 8월에는 배로 정주판 『漂海錄』의 책판을 移送해올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³¹⁾ 이를 통해 정주에서 『漂海錄』을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주인본임을 밝히고 있어 정주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攷事撮要』에는 정주의 책판으로 『漂海錄』이 수록된 것이 없다. 정주판의 판각을 위해 간행용 책지와 목을 보내고 책판을 경중으로 이송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아 미암이 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선조 4(1571)년 11월에는 전라감사 李陽元에게 『漂海錄』 1권을 주어 羅州에서도 개간하게 하였다.³²⁾ 이 일은 순조롭지 못한 듯 선조 5(1572)년 11월에 전라감사 李陽元이 『漂海錄』을 남원에 보내 여러 지방관청에 나누어 판각하게 하였음을 알려오자³³⁾ 매우 기뻐하였다. 선조 6(1573)년 6월에 또 전라감사 李[仲虎]에게 남원에서의 개간을 부탁하였다.³⁴⁾ 결과 11월에 전라감사 朴民獻이 인출본 3책을 보내왔다.³⁵⁾ 이로서 남원판 『漂海錄』도 이즈음 판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선조 9(1576)년 6월 曹僩을 통해 『漂海錄』 인출지를 남원에 보냈고,³⁶⁾ 7월에 남원에서 『漂海錄』을 보내왔다.³⁷⁾ 이 판목은 남원에서 단독으로 판각한 것이 아니고 남원과 나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관청에서 분담하여 각판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판목 역시 『攷事撮要』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주판 『漂海錄』은 선조 3(1570)년 5월 이전에 판각되고 남원판은 선조 6(1573)년 가을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眉巖日記』에 나타난 『漂海錄』 판각기록은 표 1과 같다.

『漂海錄』의 전래본은 한문본의 갑인자본, 목판본, 목활자본과 국역 필사본이 있다. 성종 20(1489)년경 왕명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주갑인자본이 초판이다. 이 갑인자본은 고려대학교 화산문고본³⁸⁾에 잔본이 전래되고 있다. 후에 이 갑인자본을 저본으로 복각되기도 하였다. 이 복각본의 잔본도 선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세대학교³⁹⁾에 소장되어 있는데 마멸이 심한 면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는 새로 판각하여 보충한 판면도 나타나고 있다.

29)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庚午 5월 28일. 책2. p.253.

30)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庚午 7월 22일. 책2. p.346.

31)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辛未 8월 9일. 책3. p.140.

32)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辛未 11월 2일. 책3. p.187.

33)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壬申 11월 8일. 책3. p.302.

34)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6월 25일. 책4. p.24.

3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11월 21일. 책4. p.176.

3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6월 24일. 책5. p.226.

37)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7월 1일. 책5. p.232.

38) 華山文庫漢籍目錄(서울: 고려대학교 도서관, 1976), p.13.

39) 古書目錄. 제2집(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 1987), p.424.

〈표 1〉 漂海錄

日 字	書 籍	關 係 人	事 由
庚午 5.28.	漂海錄	定州牧使尹大用	印出冊紙墨 二折壯紙4卷,松烟墨2丁送付
7.22.	漂海錄(定州印本) 3冊	書員金謹	自關西持來
辛未 8. 9.	漂海錄板		思移來
11. 2.	漂海錄	全羅監司李陽元	受一件而約開刊于羅州
壬申 11. 8.	漂海錄	全羅監營李陽元	付南原府分定各官開刊有緒
癸酉 6.25.	漂海錄	[全羅]監司李[仲虎]	囑南原開刊事
11.21.	漂海錄 3冊	全羅監司朴民獻	印送來
丙子 6.24.	漂海錄	曹僞	送印紙于南原
6.27.	漂海錄	南原府使子 李效元	精印云
7. 1.	漂海錄	南原	印粧封送

이상에서 살펴본 바 성종 20(1489)년 初鑄甲寅字本은 초판이지만 활자본이므로 제외되어야 하지만, 선조 3(1570)년에 판각된 정주판과 선조 6(1573)년 남원판은 『攷事撮要』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선조 6(1573)년 남원판만 최부의 문집인 『錦南集』에 반영되어 있다. 『錦南集』에는 선조 6(1573)년 남원판을 초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숙종 2(1676)년에 『錦南集』과 『漂海錄』을 나주목사 李喜年이 중간했으며, 고종 32(1896)년에 삼간한 것으로 수록하고 있다.⁴⁰⁾ 숙종 2(1676)년 간행의 목판본은 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종 32년본은 康津에서 간행한 목활자본이다. 이외에 영조 1(1725)년 간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계명대 수장의 목판본이다.

B. 錦南集

미암의 가계에는 가까운 조상 가운데 仕宦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젊은 시절 외조부는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외조부와 관련된 서적의 간행 즉 외조부의 『漂海錄』과 『錦南集』의 간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암은 선조 1(1568)년부터 외조부 최부의 문집인 『錦南集』의 간행에도 많은 노력을 한 바 羅士忱과 같이 교정을 하면서 편차하여 간행하였다.⁴¹⁾ 그간 선조 1(1568)년 9월에는 奉常寺 下典 福龍에게 『錦南集』을 필사하게 하였다.⁴²⁾ 수록된 내용은 소 2편, 기 4편, 비명 1편, 논 120편, 시 1수, 연보 등과 표해록 3권이다.

40) 崔溥, 錦南先生文集. 木活字本. [建陽 1(1896)], 장12. 年譜拾遺錄.

41)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8월 1일. 책1. p.304.

42)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9월 12일. 책1. p.346.

이어 선조 1(1568)년 9월에 전라감사 李俊民을 만났는데 감사는 후일에 『錦南集』을 개간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⁴³⁾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선조 4(1571)년 미암은 전라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이때 『錦南集』을 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자신이 쓴 識文을 수정하여 弘治와 正德 4글자를 첨가하기도 하였다.⁴⁴⁾ 6월에 모두 42판을 18읍에 나누어 판각하여⁴⁵⁾ 10월에 15건을 인출해 왔다⁴⁶⁾고 하고, 나누어 준 곳을 기록하고 있다. 나누어 준 곳은 二相 朴淳, 二相 吳謙, 四宰 宋純, 參議 奇大升, 生員 尹衡, 安東 尹復, 羅士惇, 羅士忱, 羅士惕, 判校金彥琚, 檢詳 閔, 正郎 金, 吳彥祥, 李惟秀, 李海南, 參判 李後白, 崔顥, 光霽이다. 15건을 인출해왔다고 했으나 나누어 준 사람만 18명인 것을 보아 20건 이상 인출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암의 기록에서는 『錦南集』의 간행지역 18곳을 다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전라도의 거의 대부분의 읍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조 9(1576)년 7월 나주목사 金命元이 『錦南集』을 보내왔는데 이때 발문의 “壬寅春”을 “壬寅冬”으로 고쳐 인출할 것을 청해 인출해 왔다.⁴⁷⁾ 壬寅은 곧 성종 13(1482)년으로 최부가 親試文科에 급제한 때이다. 현재 발문에 “壬寅冬”으로 기록된 목판본을 찾지 못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인본에도 “壬寅春”으로 인출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이전의 간본들을 모각하거나 복각하였으므로 고친 발문이 있는 책을 저본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眉巖日記』에 나타난 『錦南集』 관계기록은 표 2와 같다.

〈표 2〉 錦南集

日 字	書 籍	關 係 人	事 由
戊辰 8. 1.	錦南先生集	羅士忱	校正
9.12.	錦南集	奉常寺下典福龍	寫資而去
9.28.	錦南集	全羅監事 李俊民	約後日開刊
辛未 6.18.	錦南集		開刊, 總42板 分定字作板于18邑
10. 6.	錦南集	鄭彥洪	寫識文
10.11.	錦南集	鄭彥洪	寫識文
10.15.	錦南集 15件	二相朴[淳] 등	[印出後]分送
丙子 7. 1.	錦南集	羅州牧使 金命元	跋文修正印出

43)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9월 28일. 책1. p.364.

44)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辛未 10월 11일. 책3. p.171.

4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辛未 6월 18일. 책3. p.112.

4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辛未 10월 15일. 책3. p.174.

47)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7월 1일. 책5. p.232.

선조 18년본 『攷事撮要』 나주조에 『錦南集』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아 18읍에서 분담하여 판각한 판목을 나주로 모아 보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錦南集』 판각의 상한선은 선조 4(1571)년인데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 누락되었다가 선조 18년본에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錦南集』은 성종년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바 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 선조 4(1571)년에 전라도에서 분담을 시도하여 미암이 전라감사로 부임한 후 선조 6(1573)년에 간행한 나주판이 있다. 금남의 연보에는 숙종 2(1676)년과 고종 32(1896)년에 간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⁸⁾ 숙종 2(1676)년 간본은 『漂海錄』과 함께 나주목사 李禧年이 중간한 것이다. 이 판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종 32(1896)년본은 목활자본이다. 이는 국립도서관, 계명대, 연세대, 山氣文庫에 잔본이 수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영조 1(1725)년 鄭重元이 인출을 주도한 중간본이 국립도서관과 정신문화연구원에 잔본이 수장되어 있다.

2) 兒童教育用 書籍

조선시대 사람으로 미암은 드물게 아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아동의 훈육용 교재도 편찬하였는데 중국의 『蒙求』를 속찬한 『續蒙求』와 『類合』을 개편한 『新增類合』을 들 수 있다. 이도 판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A. 續蒙求

『續蒙求』가 『眉巖日記』에 처음 기록된 것은 선조 즉위(1567)년 10월이다. 이때 미암은 막 유배에서 풀려나 사환된 때이다. 이전에 『續蒙求』를 李森의 丈家에 수장시켰거나, 빌려주었던 듯하다. 李森의 丈家에 사람을 보내 가져왔고,⁴⁹⁾ 이를 尼山の 李森을 통하여, 慶尙右兵使인 合浦兵使에게 전달했다. 이후 11월에 楊士衡을 통해 인출지를 보내서 인출하게 하여,⁵⁰⁾ 선조 1(1568)년 7월에 완성되어 合浦兵使 李大伸이 『續蒙求』 인본 4건과 원본을 함께 보내왔다.⁵¹⁾ 미암은 개간한 책이 매우 정밀하다며 17년 노력한 책을 하루 아침에 이루어 기쁘고 즐거움이 한량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중 1건은 판사 李滉에게 보내기도 하였다.⁵²⁾

합포의 『續蒙求』의 판각과 판목에 대해서 『攷事撮要』에 기록이 없다. 『眉巖日記』를 통해 합포간 『續蒙求』의 판각은 늦어도 선조 1(1568)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여러

48) 崔溥, 錦南先生文集. 木活字本. [建陽 1(1896)], 장12. 年譜拾遺錄.

49)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丁卯 10월 2일. 책1. p.4.

50)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丁卯 11월 28일. 책1. p.60.

51)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7월 5일. 책1. p.278.

52)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7월 23일. 책1. p.296.

차례 『續蒙求』의 인출을 부탁하였고, 선조 1(1568)년에는 곤양군수 趙惟誠을 통하고,⁵³⁾ 선조 3(1570)년에는 안동부사 崔應龍을 통해 인본을 입수하였는데⁵⁴⁾ 이들도 합포본으로 파악할 것 같다.

그러나 이 『續蒙求』에 미진한 점이 있어 여러 차례 개정하였는데,⁵⁵⁾ 이 개정고를 선조 6(1573)년 7월에 성주에 보내서 판각하게 하였다.⁵⁶⁾ 또 3월에는 경상 도사 李璫에게도 보내니,⁵⁷⁾ 7월에 李璫이 보각한 초고를 보내왔다.⁵⁸⁾ 11월에는 경상감사 金繼輝가 인출을 약속하고 인출해서 경상감사 金繼輝가 인본을 보내왔다.⁵⁹⁾ 그러나 이 인본에는 3장에 여전히 잘못된 곳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표 3〉 續蒙求

日 字	書 籍	關 係 人	事 由
戊辰 7. 5.	續蒙求(印本) 4件	合浦兵使李大伸	元本送來
7. 23.	續蒙求(合浦新刊本)	判府事李[滉]	封送
10. 4.	續蒙求 4冊	昆陽郡守趙惟誠	印送[來]
庚午 5. 10.	續蒙求	慶尙監司朴大立	[懇請印送]
6. 30.	續蒙求	安東府使崔應龍	爲託
	續蒙求	榮川郡守權文海	約印送
8. 28.	續蒙求(印本)	安東府使崔應龍	送來
癸酉 7. 4.	續蒙求	慶尙都事李璫	送補刻草來
9. 14.	續蒙求	新星州判官俞詠	諾印送
11. 6.	續蒙求	慶尙監司金繼輝	印送來
甲戌 6. 15.	改正續蒙求(印本)	星州牧使河晉寶	[送]來
6. 15.	改正續蒙求(印本)	星州判官俞詠	[送]來
9. 24.	續蒙求(星州本)	慶尙監司尹根壽	諾修補印送
丙子 2. 2.	續蒙求	金堯選	令印送

선조 6(157)년 12월 성주목사 河晉寶에게 개정할 곳을 보내니,⁶⁰⁾ 선조 7(1574)년 6월에

53) 柳希春, 眉巖日記草,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戊辰 10월 4일. 책1. p.367.

54) 柳希春, 眉巖日記草,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庚午 8월 29일. 책2. p.375.

5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己巳 閏6월 9일. 책2. p.57.

庚午 5월 11일. : 庚午 9월 5일. 책2. p.201,379. : 癸酉 1월 27일. 책3. p.369.

5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7월 4일. 책4. p.101.

57)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3월 2일. 책3. p.413.

58)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7월 4일. 책4. p.29.

59)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11월 6일. 책4. p.163.

성주판관 兪詠과 목사 河晉寶가 각각 『改正續蒙求』의 인본을 보내와 傳家之寶라고 감격해 하였다.⁶¹⁾ 9월에 경상감사 尹根壽와의 대화에서 성주본 『續蒙求』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주본은 선조 7(1574)년 판각임을 알 수 있다.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는 선조 1년 합포판, 선조 7년 성주판 모두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선조 18년본 『攷事撮要』 성주조에 『續蒙求』가 수록된 것을 보아 선조 9년본에는 누락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한 바 선조 7(1574)년 7월에도 『朱子大全』에서 潘時의 처 孟琰字 文詒의 행실을 읽고 깊이 탄복하여 『續蒙求』 2권의 紀姬凜凜(권2. 60條)을 바꾸어 玉堂 書寫官에게 보내었다.⁶²⁾ 9월에는 경상감사 尹根壽가 수보본의 인송을 약속하였으나⁶³⁾ 선조 9(1576)년까지 인출하지 못하였다.⁶⁴⁾ 선조 9(1576)년 6월 또 定宇揀精의 주석과 禮記集義 4자를 삭제하여,⁶⁵⁾ 朴監司에게 개정한 것을 송부하였으나⁶⁶⁾ 이후의 기록은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합포본 간행 이후 수정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선조 7(1574)년 7월 이후 간본에는 권2 條60 紀姬凜凜의 내용을 대비해보면 알 수 있다. 『眉巖日記』에 나타난 『續蒙求分註』 관계기록은 표 3과 같다.

『續蒙求分註』의 목판본은 『淸芬室書目』에도 수록된 바 있다. 이 목판본의 특징은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黑口本이다. 도합 4책 가운데 결본으로 3책만 언급되어 있다. 제1책에는 伊山書院上이란 목서 기증기가 있고, 제2-3책에는 琴氏, 日休堂, 主日休堂이란 목서가 있고, 主日休堂이란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로서 제2-3책은 日休堂 琴應夾의 구장본임을 알 수 있다.⁶⁷⁾ 琴應夾은 명종 원(1546)년에 출생하여 선조 29(1596)년에 졸하였다. 퇴계문하에 수학하였고, 河陽縣監을 지냈다. 이 책은 또한 李仁榮의 舊藏本으로 淸芬室珍藏이란 方形印章도 날인되어 있고,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貴444)에 수장되어 있다. 이 3책은 처음부터 한 질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고 李仁榮이 수집하여 한 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권4 한 책이 결본이다. 이와 한 질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국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勝溪貴2516-12이다. 이 책은 권4 한책만 있다. 목서의 기증기는 書院上이라 기록되어 있고, 서원에서 기록한 來讀書院勿出門外가 기록되어 있다. 두 책의 판식도 같다. 승계문고본에는 李大伸의 발문, 간행 참여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간행참여자는 모두 경상도 사람이지만 교정은 미암과의 교류가 빈번한 경중의 李森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60)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12월 18일. 책4. p.202.
 61)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6월 15일. 책4. p.409.
 62)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7월 9일. 책4. p.439.
 63)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9월 24일. 책4. p.506.
 64)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2월 1일. 책5. p.127.
 6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6월 6일. 책5. p.213.
 6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6월 22일. 책5. p.225.
 67) 李仁榮, 淸芬室書目(서울: 寶蓮閣, 1968), pp.17-18.

『續蒙求』의 활자본도 알려져 있는데 명종~선조년간에 간행된 목활자본이다. 특징은 四周單邊, 有界, 10行21字, 黑口本이다.⁶⁸⁾ 이에 대해 이 활자를 나주에서 만든 錦城字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新增類合

미암은 동궁이 배우는 구분 『類合』에 요긴한 글자가 많이 빠지고 불교를 숭상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증보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⁶⁹⁾ 발문에 의하면 편찬에 착수한 것은 중종 37(1543)년이다. 대충 완성될 무렵 사화로 말미암아 20여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어 방치하게 되었다. 후에 上中下 3卷本을 찾아내어⁷⁰⁾ 다시 수보하기 시작한 것은 선조 3(1570)년이었다. 그러나 3년반 정도 편찬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다가 선조 6(1573)년 12월에 서사관 宋忠祿에게 『類合』의 언해를 쓰게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⁷¹⁾

선조 7(1574)년 정초에 다시 宋忠祿에게 中草를 쓰게 하였고,⁷²⁾ 또 趙啓沃에게 중복되는 글자를 찾고 上聲과 去聲의 圈點을 가하게 하여⁷³⁾ 수정을 하고 있다. 이리하여 『類合』의 증보를 마친 바, 요긴하고 마땅히 사용해야 할 글자를 上卷에 1,000자, 下卷에 2,000자, 도합 3,000자를 수록하였다.⁷⁴⁾ 한글로 釋음을 단 상하2권과 서문, 목록, 발문의 2권1책본으로 만들어졌다. 처음 계획은 3권본이었던 듯하나 2권본으로 만들어졌다.

『新增類合』의 사본은 『眉巖日記』에 서사관이던 宋忠祿이 증초를 쓴 것,⁷⁵⁾ 유희춘의 아들 柳景濂이 서사한 것⁷⁶⁾, 그리고 후에 礪城君 宋寅이 쓴 진상본⁷⁷⁾이 기록되어 있다. 선조 7(1574)년 『新增類合』이 완성된 후 선조 7(1574)년 4월 황해감사 閔起文에게 『新增類合』을 보내 간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고,⁷⁸⁾ 다음날에는 朴山이 『類合』을 가지고 해주로 가기도 하였다.⁷⁹⁾ 해주로 갔던 朴山이 5월초에 돌아오면서 閔起文이 『類合』을 즉각 개간하겠다는 것을 알려 왔다. 아울러 閔起文의 편지에 『新增類合』은 아동의 독서에 절실할 뿐만 아니라 글자를 고구하는데 매우 절실한데 마침 좋은 판이 있어 즉각 각출하게 하였다

68) 李仁榮, 淸芬室書目(서울: 寶蓮閣, 1968), pp.265.

69) 柳希春, 新增類合. 影印本. (서울: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2), pp.11, 207. 序, 跋.

70)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庚午 7월 7일. 책2. p.321.

71)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癸酉 12월 27일. 책4. p.210.

72) 柳希春, 眉巖日記草,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1월 11일. 책4. p.228.

73) 柳希春, 眉巖日記草,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1월 20일. 책4. p.233.

74) 柳希春, 眉巖日記草,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2월 2일. 책4. p.251.

7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正月 11일. 책4. p.228.

7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正月 19일. 책4. p.25.

77)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10월 10일. 책5. p.285.

78)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4월 17일. 책4. p.329.

79)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4월 18일. 책4. p.329.

고 하였다.⁸⁰⁾

8월에 황해감사 閔起文이 『新增類合』 5책을 인출해서 보내왔는데 이 登梓本의 필사자는 李應福으로 자법이 아름답고, 刻도 훌륭하여 기쁘다고 하면서 다만 誤刻이 하나 있고, 加刻이 있으므로 모두 알려야겠다고 기록하고 있다.⁸¹⁾ 이 책판은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 누락되어 있고,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 수록되어 있다. 이로서 海州刊行의 『新增類合』은 선조 7(1574)년 판각본임을 알 수 있다.

선조 9(1576)년 미암은 벼슬을 쉬고 潭陽에서 저술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때 진상용의 『大學釋疏』와 『類合』의 수정에 매달렸다. 5월에는 선조에게 『大學釋疏』와 함께 진상하기도 하였다.⁸²⁾ 이어 7월에 왕은 『大學釋疏』는 『四書』의 완간을 기다려 간행하고 『類合』은 즉각 인출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왕은 善書者에게 登梓本을 필사하게 하여 개간하고자 하였다. 미암은 開城府 進士 韓濩가 선사자라고 추천하였으나 왕은 그의 글씨를 본 바 있는데 필력이 不勁하다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였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미암은 기록하고 있다.⁸³⁾ 金東旭은 韓濩의 필적으로 보고 있다.⁸⁴⁾ 이로서 증양에서도 『新增類合』을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날 교서박사 李廷鸞이 미암이 전후 2차 진상했던 『新增類合』 2권 4책을 가져와서 교서관에서 精寫刻板하라는 명이 있었음을 전하였고, 미암은 나중에 진상한 책을 정본으로 하여 간행하게 하였다.⁸⁵⁾ 이후에도 미암은 『類合』의 수정을 꾸준히 하여 수정본을 왕에게 바치고 수정본을 간행하게 하였다.⁸⁶⁾ 그러나 이후에는 기록이 산실된 탓인지 완간에 대한 언급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선조 9년 교서관판은 아마도 활자로 간행되었을 것이므로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 수록될 수 없었을 것이다. 『眉巖日記』에 나타난 『新增類合』 관계기록은 표 4와 같다.

80)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5월 6일. 책4. p.356-357.

81)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甲戌 8월 11일. 책4. p.472.

82)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5월 9일. 책5. p.197.

83)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7월 22일. 책5. p.257.

84) 柳希春, 新增類合. 影印本.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2), p.225.

85)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7월 23일. 책5. p.260.

86) 柳希春, 眉巖日記草(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丙子 10월 8일. 책5. p.285.

〈丑 4〉 新增類合

日 字	書 籍	關 係 人	事 由
甲戌 4.17.	新增類合	黃海監司閔起文	令開刊
5. 6.	新增類合	海州監司閔起文	令刻出
8. 3.	類合	海州監司閔起文	開刊
8.11.	新增類合 5冊	海州監司閔起文	印送來
8.27.	類合	海州牧使李遜	封送[去]
丙子 3.19.	類合	黃海監司	送印紙50丈
5. 9.	新增類合		進上
6.19.	類合 2卷	政院	命印出
7. 3.	類合(進上本)	曹佃	自來
7. 8.	類合(進上本)	南原粧册匠	粧[來]
7.21.	類合	柳希春	進上
7.22.	類合	上	卽命印出
7.23.	新增類合 2冊2件	校書博士李廷鸞	持來, 命刻版
7.25.	類合 2冊	鄭守漢	持來, 欲修補諺釋
10. 8.	類合	上	下付校書館

『新增類合』은 선조 7년 해주판은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 누락되어 있다. 다만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는 海州, 靑松과 淸道에 『新增類合』의 판목이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아직 청송판과 청도판에 대해서는 간기가 명기되거나 서지적인 특징이 있는 판본이 발견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손상본이긴 하지만 선조 38(1605)년 간행의 李壽崙家刻本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도 『攷事撮要』에는 누락되어 있다. 前主簿 李壽崙은 서사관으로 미암의 서적을 필사하는데 조력한 사람이다. 미암의 서적을 필사하기 위해 왕래하는 중에 한 부 입수해두었던 것을 후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新增類合大字라고 불리는 목활자로 『新增類合』을 인출한 것도 있다. 이 대자는 본문을 찍은 목활자의 대자와 서문, 목차 그리고 발문 등을 찍은 목활자의 대자 두 가지가 있으며, 해서체에 가까운 필서체이다. 이 한문 대자 밑에 옆으로 쓴 한글 소자의 釋音은 2~4 자씩을 옆으로 새긴 連刻木活字로 보인다. 이것도 『新增類合』을 찍기 위해 새긴 활자이다.⁸⁷⁾ 이 활자의 저본은 宋寅의 글씨인지는 알 수 없다. 韓濩의 글씨라고도 하나, 그가 쓴 『千字文』과 맞추어 보면 다르게 나타난다.⁸⁸⁾

87)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 大型活字(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76), p.69.

88)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 大型活字(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76), p.69.

활자로 인쇄한 『新增類合』은 一蓑 方鍾鉉本과 羅孫 金東旭本이 알려져 있다. 이 두 책은 본문의 대형활자는 같으나 목리나 결획 등으로 보아 羅孫本이 후기의 인본임에 틀림 없다. 서, 목차, 발문의 활자의 자체로 보아 교서관은 아닌 것 같다. 큰 글자로 찍기 위하여 목활자를 만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 각법이 치졸한 것은 지방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고 본문의 대형활자의 각법이 치졸하다는 것은 아니다. 본문 아래의 한글 석음은 치졸한 면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 활자가 교서관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당시에 이미 새로 주조된 癸酉字, 乙亥字, 甲辰字 등의 소형활자와 함께 썼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⁸⁹⁾

結 言

眉巖 柳希春은 만년에 관직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남겼으니 이 『眉巖日記』에 일상의 일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적, 가정 사까지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 일기를 통해 미암의 서적과 관련된 여러 일 가운데 미암이 주도적으로 간행하려고 노력한 서적과 그 책판을 밝혔다.

미암이 특히 간행하고자 한 서적은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조부 錦南 崔溥의 문집인 『錦南集』과 중국기행문인 『漂海錄』이다. 다른 하나는 아동용 도서로 문해용의 『新增類合』과 도덕교육용의 『續蒙求分註』이다. 이들 서적을 인출하기 위해 판각한 당시의 책판은 당대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錦南集』은 선조 4년 전라도에서 분담해서 각판했는데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는 누락되었고,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는 羅州版으로 수록되어 있다. 『漂海錄』은 선조 3년 定州版과 선조 6년 南原版 모두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남원판만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 수록되었다. 『新增類合』은 선조 7년 海州版과 선조 9년 校書館版 모두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 누락되었다. 다만 해주판만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도 李壽崙家刻本은 누락되었고, 반면 靑松版과 淸道版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청송판과 청도판은 간기를 수록하지 않았는지 간기를 통해서도 서지적인 특징을 통해서도 실물확인을 할 수 없었다. 『續蒙求分註』는 선조 1년 合浦版과 선조 7년 星州版 모두 선조 9년본 『攷事撮要』에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성주판만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 수록되었다. 이를 통해서 미암이 판각을 주도한 서적 거의 대부분이 누락되었음을 볼 수 있다. 『眉巖日記』를 통해 책판목록에 누락된 서적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眉巖日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89)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 大型活字(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76), p.71.

미암이 간행을 주도한 서적 가운데 아동용 서적인 『新增類合』과 『續蒙求分註』는 판각 도중에도, 판각이 끝나 인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미암은 끊임없이 수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래하는 동일의 간기가 수록된 판본일지라도 모두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서적이라고 볼 수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미암은 수정하면 즉시 사람을 보내 수정해서 인출해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두 서적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후고로 미룬다.

參考文獻

- 金致雨. 攷事撮要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72.
- 金致雨. 攷事撮要의 冊版目錄 研究. [釜山]: 民族文化, 1983.
- 金致雨. “壬亂以前 地方刊本の 開版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6집(1998. 12), pp.37-61.
-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 裒賢淑. “宣祖初 地方 冊板考.”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pp.299-340.
- 裒賢淑. “宣祖初 校書館活動과 書籍流通考.” 書誌學研究, 제18집(1999. 12), pp.221-251.
- 柳希春. 眉巖先生文集. 木板本. (1897)
- 柳希春. 眉巖日記草.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6-1938.
- 柳希春. 續蒙求分註. 木板本. [宣祖 1(1568)]
- 柳希春. 續蒙求分註. 木板本. [宣祖 8(1575)]
- 柳希春. 新增類合. 木板本. [宣祖年間(1567-1608)]
- 柳希春. 新增類合. 木板本. 李壽崙家刊, [宣祖 38(1605)]
- 柳希春. 新增類合. 影印本. 東洋學叢書 제2집.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大型活字.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76.
- 李仁榮. 淸芬室書目. 서울: 寶蓮閣, 1968.
- 崔溥. 錦南先生文集. 木活字本. [建陽1(1896)]
- 崔溥. 錦南先生文集. 木活字本. [英祖即位(1724)]
- 崔溥. 耽津崔氏錦南崔先生漂海錄. 木板本. [景宗 4(1724)]
- 崔溥. 耽津崔氏錦南崔先生漂海錄. 木活字本(甲寅字交木活字). [刊年未詳]
- 崔溥. 耽津崔氏錦南崔先生漂海錄. 木活字本(整理字體). 康津: 建陽 1(1896)
-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保景文化社, 1995.